

# “광주에 집중하느라 박빙지역 지원 못했다”... ‘安 책임론’

새정치연합, 경기·인천 패배 후폭풍

## 지도부 교체 요구까지는 나오지 않을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승패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도권 3곳 중 경기·인천에서 패배하고 서울시장 1곳만 건지자 안철수 공동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일 분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압승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 크게 뒤지는 등 전체적인 선거 결과가 4년 전보다 못하게 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지 않은 과장이 일고 있다.

물론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중원' 4곳의 승리를 해서 당장 현 지도부 교체 요구라는 강수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선거 승패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당 지도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안 대표), “국민 앞에서 여야와 대통령 모두가 패배자”(김한길 공동대표)라고 몸을 낮췄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 인터뷰에서 “경기 선거가 좀 아쉽고, 인천의 경우 당력을 집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안 대표가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진 광주시장 선거

에서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 했다. 경기·인천 패배는 총청 승리로 위안을 삼을 수 없는 뼈아픈 대목”이라며 “광주에 당력을 올린, 초방빅 지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내내 발목을 잡았다”고 가세했다.

은수미 의원은 트위터에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문병호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일단 승리는 했지만 2% 부족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 승리와 관련, “광주에서 안 대표의 (전략)공천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안 대표가)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광주시민들께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고려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글에서 “당력을 광주에 집중, 경기·인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못 한 게 패인”이라며 “광주 무소속 연대 바람이 전·남북을 강타, 36개 기초단체장 중 15곳을 무소속에 헌납? 이런 공천은 안 해야 하고 7·30 재보선 때에는 파벌 지분 공천을 없애야 한다”며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출신인 정정래 의원도 트위터글

에서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기지 못 했다. 경기·인천 패배는 총청 승리로 위안을 삼을 수 없는 뼈아픈 대목”이라며 “광주에 당력을 올린, 초방빅 지역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내내 발목을 잡았다”고 가세했다.

은수미 의원은 트위터에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 문병호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일단 승리는 했지만 2% 부족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 승리와 관련, “광주에서 안 대표의 (전략)공천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안 대표가)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광주시민들께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 다음 총선, 대선까지도 고려한 투표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글에서 “당력을 광주에 집중, 경기·인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못 한 게 패인”이라며 “광주 무소속 연대 바람이 전·남북을 강타, 36개 기초단체장 중 15곳을 무소속에 헌납? 이런 공천은 안 해야 하고 7·30 재보선 때에는 파벌 지분 공천을 없애야 한다”며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 박대통령, 인적쇄신 시발 국정 재가동 총리 후보 인선에 총력 기울일 듯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다소나마 가라앉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재가동에 나설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다소 여유를 갖고 인적쇄신을 시발로 공직사회 개혁 등 다양한 국정과제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천명한 ‘국가개조’의 신호탄은 후임 총리 인선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총리 후보 인선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찾아야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정채권 인사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의 명망가들까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공석 중인 국가정보원장 지명과 큰 폭의 내각개편을 위한 후보자 물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새 총리를 지명하는 대로 국가개조의 핵심인 ‘관피아’(관료파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경제혁신·규제완화·통일대박 등 국정 큰 의제의 추진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날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민 대변인은 “선거가 끝나고 추진해야 할 각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논의와 보고가 주류를 이뤘다”며 “실장은 이러한 것들을 시간표에 맞게 잘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원칙적인 말씀과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안철수(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KBS 길환영 사장 해임

이사회, 제청안 가결

KBS이사회(이사회 이길영)는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

KBS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길 사장 해임제청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 사장은 지난 2008년 정연주 사장에 이어 KBS이사회가 두번째로 해임한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한 김재철 MBC 사장까지 포함해 세 번째로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으로 기록된다.

길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지만 결국 해임안이 통과됐다.

KBS이사회는 수일 내 박근혜 대

령에게 길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되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후 공모를 통해 신임 사장을 뽑는 절차에 돌입한다.

KBS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한차례 유보한 바 있다.

앞서 야당 측 이사들은 지난달 26일 보도통제 의혹 확산에 따른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 훼손 ▲공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공사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 등의 사유로 길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與 남경필·원희룡, 野 박원순·안희정 대권주자 부상

여야 잠룡들 성적표는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여론 보다는 야권 잠룡들이 정치적 무게가 더 나간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여권에서는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치명적 내상을 입었다는 평가다.

반면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당내에서 치열한 대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새로운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도 대선 도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비교적 지방선거를 무난하게 치러냄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을 지키게 됐다는 평가다.

문재인 의원이 영남지역 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두 번째 대선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라는 거물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강력한 ‘블루 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손학규, 정동영 고문 등도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선 성공으로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안 지사는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음을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대망론’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충청권이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데다 과거 DJP연대(김대중·김종필 연대)를 통해 정권 창출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안 지사의 대선 도전론이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역구에도 몸을 던진 김부겸 전 의원과 분배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대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대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업선 편백 3월중금 매대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대가 6억9천

###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대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대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대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지택지 88평 매대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대 세월지 매대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양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감정가이하

- 개림동 4차선도로점 상업지 571㎡(173)공시지가 7억 은행 5억 5천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동성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개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 투자 / 매도 / 교환

- 생촌역부근 고시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만원의 매도 5억 2천
- 치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선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곡면 관내지역 8553㎡(2587)공장·창고·주택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택 직할 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 5천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생촌동 5.18공영권부근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안진 원룸 15개 5억 6천
- 생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공시지에 매도 8500
- 보성특랑면 산 68430㎡(20700)교환가능 1억 3백
- 남구 사동 사직공원부근 10월 준공예정인 주택 85㎡ 은행 1억 5천선 생활여건용 2억 3천
- 남구 서동 신축2층주택 대지 136㎡(41) 건평 132㎡ 임대 1억 4천 매도 4천 만원
- 나주시 신평면 발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 임대

- 생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오락실 호프집 대형식당 등 복합 보증금 5천에 월 230만원예정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랜차이즈 임점
- 북구 신웅동 유치원 건물 매대 23억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대 27억(보4.1억 월1,240만)
- 서구 풍암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월20만포함)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대 40억 (보4억 월2,000만)
- 광산구 수원지구 상가건물 매대 110억

####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대 6억 6천
- 서구 생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대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대54억(병원최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대 12억(창고적합)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대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대 6억5천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29,800㎡ 매대39억
- 서구 마죽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대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대 16억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대 7.2억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 저렴한 고급 별장

####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소,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 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